

### 한줄요약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 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이전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 도입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신이 가진 재능? 지인? 부모님? 믿을만한 동료? 이들이 도와주어 일시적으로 일을 해결한다 해도 또 다른 위기가 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을 벗어나지 못할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재능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의 재능이 남달랐던 그는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복을 받아 형 에서가 분노하여 죽이려 하자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지만 거기서 20년을 주로 외삼촌과 잔머리 싸움을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판단과 순발력을 이용해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사람들과 맞섰다는거죠.

### 1) 씨름하는 야곱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이 통하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전에 삼촌 라반과의 갈등을 잘 해결하긴 했지만 다시 돌아가지는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이 피해서 도망간 형 에서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사람을 보내 에서를 살폈지만 에서는 자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을 동원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머리로 해결하려 하니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이 자신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래도 자기 나름의 해결책으로 선물을 보내고 도망을 생각하여 자기 무리를 두떼로 나누기도 했지만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 생각했는지 자신은 홀로 떨어져 있었는데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어느정도냐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까지 할 정도로 치열하게 씨름했습니다.

그 와중 야곱이 한 말이 인상적인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야곱은 위기의 순간에 알았던겁니다. 인생의 위기?, 시련?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일요.

그러니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환도뼈가 어긋남에도 붙잡고 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2)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삶은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는 투쟁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형과 아버지와 삼촌과 겨루었으며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고 있습니다. 이런 투쟁의 인생에서 이번 하나님과의 대면은 이전의 투쟁과 조금 달랐습니다. 이전의 투쟁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 자기의 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과의 대면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이전의 투쟁은 뒤처리가 찢찢한 것처럼 원하는 것을 얻어도 늘 증오가 동반된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니 이전처럼 증오가 동반된 사건이 아니라 완전히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야곱이란 이름과 연류되어 있는 뜻 지령이 같은 사람, 속이는 자 같은 모든 부정적인 의미를 제거하신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이제는 그를 다스린다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야곱아 여태까지는 네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통치아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속임과 두려움 속에서 위기의 연속이었던 자신의 인생이 무엇 때문인지를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한 듯

보였지만 해결된 문제 위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은 자기가 벌려놓은 인생의 최대 위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일이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된 이상 우리에게 닥친 위기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생을 통해 알게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 자신감은 두려움으로 변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 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이전의 두려움은 아무 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출처: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저 두란노 아카데미,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 저 송병현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상, 저 J.H 세일해머, 대망의 책  
BKC(Bible Knowledge Commentary)주석 창세기, 엘런 로스

창세기 41장 25-38절

역사? 인생? 하나님이 함께라면

- 1) 바로의 꿈
- 2) 하나님의 구원계획

한줄요약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의 인생을 보며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서론

오늘은 야곱의 인생만큼이나 굴곡이 많았지만 단 한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불편한 모습을 보인적이 없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너무 유명합니다. 형제에게 팔림을 당하여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써 감옥에 들어가 떡과 술을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하여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 1) 바로의 꿈

이 바로의 꿈이야말로 요셉의 인생과 이집트의 역사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냐? 나일강에서 풀을 뜯고 있던 살진 일곱 암소를 흉하고 파리한 일곱 소가 잡아먹는 꿈과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삼킨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꿈이 중요하고 이상한 꿈을 직감하고 당대 세계 최고의 선진국 반열에 있던 애굽의 모든 현인과 점술가들에게 물었지만 그 누구도 해석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요셉은 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풀이하였고 그 내용은 일곱은 7년을 뜻하고 살진 암소와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은 대 풍년, 흉하고 파리한 소와 마른 소는 대 흉년을 말하는 것인데 이 흉년은 이전에 풍년을 잃어버릴 정도로 극심한 흉년이 될 것이라 이야기 하며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까지 제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하면서 모든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 말했다는 겁니다.

#### 2) 하나님의 구원계획

요셉은 자신의 지혜가 모두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이방신을 믿는 저들에게 당당히 공포했고 그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이 시대의 국가들은 그 국가를 지배한다고 믿는 신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들은 이 신의 능력을 빌려 백성들을 통치한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신이 아닌 하나님을 높였다는건 이들의 자존심과 통치의 명분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었으나 요셉과 함께했던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와 고관들의 마음을 제압하

서 그들이 요셉의 말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미래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애굽의 앞으로 올 국난을 해결함으로 멸망당할 뻔한 애굽을 구하셨고, 요셉의 인생을 구하셨으며 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셔서 미래의 우리들에게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우리의 인생, 미래, 더 나아가 국가와 하나님의 계획까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를 포함한 애굽의 고관들처럼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출처: 저 두란노 아카데미,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 저 송병현,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상, 저 J.H 세일해머

창세기 45장 1-8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 1)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
- 2)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이미 용서한 요셉

한줄요약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 할 수 없고 알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성취된다.

서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를 비롯한 애굽사람들을 감동시켜 나라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동지방의 대 기근은 애굽을 넘어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방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지난 대 풍년 때 식량을 비축해둔 애굽에서 식량을 구할 것을 요구했고 베냐민을 제외한 형제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떠납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 개인의 연단도 있었겠지만 모든 일의 이유가 하나님의 인류 전체를 향한 구원계획 때문이라면 믿어지십니까? 현재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형제들을 만난 요셉의 고백을 통해 드러납니다.

- 1)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

자신을 요셉이라 밝힌 애굽의 총리를 보자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움에 떨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 요셉은 바로 자신들이 죽이려하다 팔아버린 그 아우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복수하고자 한다면 자신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형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절대로 보내지 않으려는 야곱을 설득하고 요셉이 숨긴 은잔으로 인해 베냐민이 해를 입을 위기에 처하자 자신을 담보로 베냐민을 구하려는 유다를 보고 요셉은 감정을 참지 못합니다. 이는 분노로 인한 감정이 아니라 질투에 휩싸여 형제를 해한 형들이 아닌 자신을 희생해서 형제를 구원하려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 2)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이미 용서한 요셉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힘과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이미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고 있었고, 그 섭리는 과거부터 현재 자신과 가족 그리고 미래의 후손 더 나아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과거 자신에게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감사와 순종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여 당신들을 이미 용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말 속에서 형들이 한 행동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신비스럽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 형제들 사이에 미움과 증오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자유의지 보다 더 큼니다. 인간의 최악된 행동도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스러운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계획을 이루어 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은 당장은 깨닫지 못하지만 세월이 지나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인간의 짧은 안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며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연속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으며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 할 수 없고 알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성취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가 겪는 세상의 풍파는 각자가 요셉이 겪은 고난 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 말씀에 순종하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여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놀라운 인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출처: 저 두란노 아카데미, 엑스포지멘터리 창세기, 저 송병현,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상, 저 J.H 세일해머, 대망의 책, 저 김영욱

### 출애굽기 3장 1-12절

부르시는 하나님

- 1) 부르심에 반항하는 모세
- 2) 도우시는 하나님

### 한줄요약

하나님은 늘 거부하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다. 부르심에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누리며 걸어간다.

### 서론

하나님은 각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모두에게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양육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이유가 있고 각자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사명이라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 1) 부르심에 반항하는 모세

애굽에는 요셉을 잊은 왕들이 세워지며 변성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위협을 느껴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 수를 줄이기 위해 사내아이를 죽이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된 애굽의 정책에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모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에 의해 히브리인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으나 애굽사람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장면을 보고 애굽사람을 죽이고 바로에게 죽을까 달아나 미디안으로 도망가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계획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소명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을 구원하실 건데 그것을 모세를 통해 하실 것이라는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소명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자기의 의견을 말합니다. 모세의 의견은 놀랍게도 그의 능력부족과 권위의 결핍을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음에도 거부하는 모습의 모세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던 아브라함과는 대조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쓰시기로 결정한 이상 그에게 거부권은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삶 또는 주님이 주신 비전들을 알면서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정의와 공의를 우리에게 똑같이 보이셨다면 우리의 거부는 하나님을 망령되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져 버려질 운명이지만 하나님은 늘 참아주시며 사랑해주십니다.

## 2) 도우시는 하나님

모세 또한 하나님의 굵직한 구원계획을 거부함에도 비인격적으로 모세를 대하지 않고 그를 설득하시고 납득시키시며 끝까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훗날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를 누리는 역할인지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10년이든 40년이든 어떠한 극악의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늘 인자와 자비로 다스리며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된 백성들은 비록 거부할 때도, 실패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광야를 걸어나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걷는 모세처럼 인생의 광야를 걸어 약속하신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늘 거부하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은혜를 깨달을 때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누리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길을 열어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출처: 엑스포지멘터리 출애굽기, 저 송병현,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하, 저 J.H 세일해머, 대망의 책 저 김영옥  
BKC(Bible Knowledge Commentary)주석 출애굽기, 엘런 로스